

‘출산(出產)’과 ‘황국신민(皇國臣民)’의 미래

- 김남천의 『어떤 아침(或る朝)』을 중심으로

이진형*

1. 징병제와 일본어 소설
2. 『의사 기온』과 소설의 형식
3. 출산(出產)일 아침, 식민지 조선의 풍속도
4. 불평등의 공동체와 황국신민의 미래
5. 문학의 내잠적(內潛的) 경향

국문요약

이 논문은 『어떤 아침(或る朝)』의 형식적 특성에 주목하여 서술된 내용을 분석하고, 작품을 둘러싼 정치적·이데올로기적 환경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그 의미까지도 해명하고자 했다.

1940년대 전반 김남천은 인물들의 설정과 배치를 중심으로 소설의 형식을 이해했다. 『두 의사의 소설』에서 그는 적극적(긍정적) 주인공을 설정하고 그 주위에 유형화된 인물들을 배치하는 것보다, 일상적 삶을 살아가는 다양한 인물들(전형적 성격)을 설정하고 배치하는 것이 작품의 주제를 드러내는 데 더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이와 같은 생각은 『어떤 아침(或る朝)』의 인물 설정 및 배치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이 작품에서 중심 인물인 ‘나’는 관찰자로 설정되어 있으며, 식민지 말기 조선 사회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인물들이 ‘나’를 매개로 배치되어 있다. 이

* 연세대학교 학부대학 강사

러한 인물 설정 및 배치를 통해서 『어떤 아침(或る朝)』은 식민지 지식인의 몰락과 계몽 이데올로기의 쇠퇴 이후 가족 이데올로기가 발흥하고 결국에는 황국신민 이데올로기가 지배력을 행사하게 되기까지 조선 사회의 변화 과정뿐만 아니라, 식민지 말기 조선인 황민화 기획이 조선인들의 일상적 삶에서 작동하는 방식들(군가 부르기, 라디오 체조, 국민학교 제도)까지도 보여줄 수 있었다.

『어떤 아침(或る朝)』에 대한 이해에서 ‘나’의 성격, 즉 ‘모방자의 모방자’이자 ‘남존여비론자’라는 성격은 매우 중요하다. 우선 모방자의 모방자라는 성격은 조선인 황민화 기획의 내적 논리(모방 메커니즘)를 드러내며, 이를 통해 식민지 조선인들이 동일성(고쿠민=황국신민)과 위계적 이질성(모델로서의 고쿠민≠모방자로서의 황국신민)의 역설적 혼합 상태에 있음을 폭로했다. 다음으로 남존여비론자라는 성격은 불평등 문제를 직접적으로 주제화하는 가운데, 식민지 말기 조선 사회란 평등의 약속 속에서 불평등 관계를 재생산하는 사회임을 보여주었다. 게다가 이 작품은 아이의 출산이라는 모티브를 통해서 사회의 역설적 상태를 역사화하는 데까지 나아갔다. 아이의 미래가 문제로 제기되는 순간, 미래라는 시간의 속성(미결정성)으로 인해 조선 사회는 그러한 역설적 상태를 반복할 필연성과 더불어 역설적 상태를 해체할 가능성 역시 내포한 것으로 드러날 수 있다.

『어떤 아침(或る朝)』은 식민지 권력에 대한 협력이나 저항으로 규정되기 힘든 작품이다. 이 작품에는 식민지 사회와 황국신민의 역설적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혹은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사회와 주체의 비전이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 대신 이 작품은 협력과 저항을 조건짓는 조선인 황민화 기획 자체를 주제화함으로써 식민지 말기 조선 문학의 또 다른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었다.

(주제어: 황국신민, 평등, 불평등, 동일성, 위계적 이질성, 역설적 주체)

1. 징병제와 일본어 소설

일본 제국주의는 1941년 12월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후 다음 해 5월 식민지 조선에서 징병제 실시를 발표했다. 이는 식민지 조선인들에게 본래의 군사적 목적 외에 문화사적 의미까지도 갖는 중요한 사건이었다. 그래서 최재서는 징병제 실시의 문화사적 의미를 다음과 같은 네 가지로 정리해서 제시하기도 했다. ‘천황 폐하’가 반도 이천사백만을 ‘고굉(股肱)처럼’ 신뢰하고 있다는 것, 반도인(조선인)이 ‘조국 관념’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 반도인(조선인)의 ‘자질’이 급격하게 향상되리라는 것, 반도인의 ‘지위’가 비약적으로 향상되리라는 것 등이 그것이다.¹⁾ 식민지 조선인은 징병제 실시와 더불어 일본인과 동일한 ‘고쿠민(國民)’으로 인정받게 된 것처럼 보였다.²⁾

징병제 실시 발표와 관련해서 흥미로운 점은 식민지 지식인들이 ‘아이’에게 보인 즉각적 관심과 애정이다. 『국민문학』 좌담회에서 있었던 김중한의 발언을 보면 이러한 관심과 애정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

1) 최재서, 『징병제 실시의 문화사적 의미』, 노상래 옮김, 『전환기의 조선 문학』, 영남대학교 출판부, 2006, 142~146쪽.

2) 징병제 실시는 식민지 권력에게 내선일체의 궁극적 도달점이자 그 상징적 표현을 의미했다. 징병제란 조선인들이 일본을 위해 기꺼이 생명을 바칠 수 있을 정도로 황민화가 진척되었다는 확신이 없다면 실시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이 징병제 실시 무렵 ‘실제로’ 내선일체가 완료되고 황민화가 완수되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최유리, 『일제 말기 식민지 지배정책연구』, 국학자료원, 1997, 179-215쪽 참조)

김종한: 그 때 저는 경성 호텔 앞을 걷고 있었는데요, 최재서 주간이 맞은 편에서 다가오더니 저를 보고 갑자기 “들었습니까?”라고 물었어요. “무엇을요?”라고 되물자 “징병제 말입니다”라고 하더군요. 갑자기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아서 1분 정도 꼼짝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최재서 주간이 “오늘 아이들을 보니 사랑스러워서 견딜 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저도 문득 아이를 소재로 시를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때 떠올랐던 것을 다듬어서 얼마 후에 『유년』이라는 시를 써봤습니다.³⁾

김종한과 함께 좌담회에 참여했던 이석훈 역시 징병제 실시 발표와 함께 “아이가 믿음직해졌다”⁴⁾는 진술을 함으로써 ‘아이’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동참했다. 그들이 징병제 실시 발표를 들은 뒤 즉각적으로 ‘아이’에게 관심을 갖고 애정을 표현한 이유는 분명해 보인다. 어른과 달리 아이는 자라서 병역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존재였고, 그럼으로써 이미 조선인으로 성장한 어른과 달리 ‘훌륭하고 강한 고쿠민’이 될 수 있는 존재였다.⁵⁾ 특히 군대는 조선의 아이들이 법적으로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일본의 아이들과 동등한 존재로 인식될 수 있는 장소, 즉 평등을 경험할 수 있는 장소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했다.⁶⁾ 이광수의 소설

3) 문경연 외 옮김, 『군인과 작가, 징병의 감격을 말한다』(『국민문학』, 1942.7), 『좌담회로 읽는 『국민문학』』, 소명출판, 2010, 209쪽.

4) 위의 글, 223쪽.

5) 식민지 권력은 ‘황국신민의 서사’도 아동용(초등 정도의 학교 및 각종 유소년단체용)과 일반용(중등학교 및 동 정도 이상의 학교 및 청년단체와 동등 이상의 유사단체용) 두 가지로 제작했다. 그 둘의 가장 큰 차이는, 아동용 ‘황국신민의 서사’의 경우 ‘훌륭하고 강한 국민이 되겠다’는 내용을 직접적으로 표기한 데 있었다.(김화선, 『일제 말 전시기의 아동문학 및 아동담론 연구』, 김재용 외, 『친일문학의 내적 논리』, 역락, 2003, 174-175쪽)

6) ‘평등’에 대한 약속은 『군인과 작가, 징병의 감격을 말한다』 좌담회에서 있었던 다음과 같은 발언에도 잘 나타나 있다.

마스기 “일본의 병역은 절대적으로 숭고한 의무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좀 전에도 말했지만 군대에서의 평등이라는 것은 부자든, 화족(華族)의 아이

『군인이 될 수 있다(兵)になりる』(『신태양』, 1943.11) 중 한 구절은 이와 관련해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소설에서 ‘나’는 군인이 되고 싶었지만 조선인이라는 이유로 군인이 되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해야 했던 아들을 둔 아버지로 등장하는데, 이런 ‘나’에게 일본인 친구 가네코 소장은 징병제 실시의 의의에 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그런 일은 벌써 지난 일이고, 내년부터 조선의 남자 아이들은 모두 군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내지인이니까 어떻다, 조선인이니까 어떻다 하는 것은 머지않아 흔적도 없이 사라지겠지요. 단지 똑같은 천황의 적자니까—그 감정이 하나가 될 날도 머지않았습니다.”⁷⁾ 식민지 권력은 징병제 실시를 통해 조선인들이 ‘황국신민(皇國臣民)’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상하게 했고, 법적·문화적·감정적 ‘평등’을 약속함으로써 그들을 전쟁에 효과적으로 동원하고자 했다.⁸⁾

이 시기 조선인 황민화 기획에서 징병제 못지않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정책은 조선어(한글) 사용 제한이었다. 식민지 권력은 1938년 개정교육령을 반포하여 조선어를 정규 과목에서 수의 과목으로 변경했고, 1941년에는 국민학교령을 제정하여 교육 과정에서 조선어를 완전히 배제했다. 이는 행정이나 학술 활동 같은 공적 영역에서만 적용되던 조선어 사용 제한을 사적 영역에까지 확장하려는 시도였다. 게다가 1942년 5월에

든, 대장의 아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모두 똑같이 별 하나입니다.”

(문경연 외 옮김, 『좌담회로 읽는 『국민문학』』, 소명출판, 2010, 230쪽)

7) 이광수, 『군인이 될 수 있다(兵)になりる』, 이정훈 편역, 『한국 근대 일본어 소설선』, 역락, 273쪽.

8) 형식 논리상 조선인이 ‘일본군인’이 됨으로써 ‘천황의 국가’의 ‘국민’이 되는 것은 가능하다. “도저히 파고들 수 없는 것만 같던, ‘내지’와 ‘외지’를 나누던 이분법 구조의 핵심인 ‘피의 순수성’(자연논리) ‘민도차이’(생활습관 공동체로서의 민족)를 단박에 넘어서는 곳, 그것을 넘어설 수 있게 해주는 곳, 그곳에 ‘국민’과 ‘국가가 오롯이 서 있었던 셈’이기 때문이다.(김인수, 『총력전기 일본어 글쓰기의 사상공간과 언어검열』, 공제욱·정근식 편, 『식민지의 일상, 지배와 균열』, 문화과학사, 2006, 544쪽)

는 『국어보급 운동요강』을 발표하여 문학, 영화, 연극, 음악 등 예술 분야에서까지도 조선어 사용을 금지했다. 『국민문학』이 연 8회로 예정되어 있던 ‘언문판(한글판)’ 발간 계획을 폐기하게 된 것도 이와 무관한 일이었다.⁹⁾ 이러한 조선어 사용 제한 정책이 절정에 달한 것은 1942년 10월 조선어학회 사건에서였다. 식민지 권력은 『한글맞춤법 통일안』(1933),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1940), 사전 편찬 같은 작업들을 통해서 ‘상상의 공동체로서의 국민국가와 유사한 역할을 해왔던 조선어학회의 구성원들을 검거함으로써, ‘조선’의 정체성을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모두에서 완전히 지워버리려고 했던 것이다.¹⁰⁾ 이후 식민지 조선에서 조선어 사용은 모든 영역에서 법적으로 금지되었고, 조선인은 황국신민으로서 혹은 황국신민이 되기 위해서 일본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식민지 권력이 징병제 실시와 조선어 사용 제한을 통해서 조선인 황민화 기획을 급속하게 전개하던 시공간, 이는 『어떤 아침(或る朝)』(『국민문학』, 1943.1)의 생산을 가능하게 한 조건이자 김남천이 이 작품을 통해서 개입해 들어간 지점이었다. 이는 서로 관련되어 있는 두 가지 사실을 통해서 설명될 수 있다. 우선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작품이 ‘황국신민’의 형성을 목표로 창간된 잡지 『국민문학』에 일본어로 발표되었다는 사실이다. 이 시기 ‘국어로 소설을 쓸 수 있는 작가는 너댓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¹¹⁾’는 최재서의 언급해서도 드러나듯, 『국민문학』은 일본어판만 간행하기로 결정한 뒤 필자 선정에 상당히 애를 먹고 있었다.

-
- 9) 윤대석, 『언어와 식민지-1940년을 전후한 언어상황과 한국 문학자』, 『식민지 국민문학론』, 역락, 2006, 120-121쪽.
 10) 김윤식, 『일제 말기 한국 작가의 일본어 글쓰기론』, 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73-75쪽 참조.
 11) 문경연 외 옮김, 『반도 학생의 여러 문제를 말한다』(『국민문학』, 1942.6), 『좌담회로 읽는 『국민문학』』, 소명출판, 2010, 203쪽.

이 점을 고려할 때 김남천이 소위 ‘문예 동원’의 맥락에서 불가피하게 『국민문학』에 일본어 소설을 발표할 수밖에 없었으리라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두 번째 사실, 즉 『어떤 아침(或る朝)』이 아내의 출산을 소재로 황국신민의 형성 자체를 주제화하고 문제로서 제기했다는 사실이다. 1943년 1월 김남천은 정치적 이유에서든 개인적 이유에서든 『국민문학』에 일본어로 소설을 발표할 수밖에 없었지만, 황국신민의 형성을 위해 창간된 잡지 『국민문학』에 장차 황국신민이 될 아이의 출산이 갖는 의미를 묻는 소설을 발표함으로써 조선인 황민화 기획에 대한 근본적 반성을 감행한 것이다.

김남천의 『어떤 아침(或る朝)』은 그 동안 두 가지 상반된 방식으로 읽혀왔다. 하나는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성실히 생활하는 주인공의 모습을 일본어로 묘사했다는 데 주목하여 김남천이 ‘과거와의 단절’(협력)을 시도한 작품으로 읽는 것이고¹²⁾, 다른 하나는 이 작품의 마지막 장면에서 감지되는 아이러니한 정조에 주목하여 ‘국민’ 생산 체제에 저항하고자 한 ‘자신의 과거에 대한 상념’(저항)을 보여준 작품으로 읽는 것이다.¹³⁾ 전자의 읽기 방식은 서술된 내용과 사용된 언어의 측면에서 볼 때 충분히 납득할 만한 것이지만, 작품의 형식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언어와 정치 이데올로기 사이의 직접적 동일성만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반면 후자의 읽기 방식은 형식적 특성에 관심을 기울이는 동시에 언어와 정치 이데올로기 사이의 직접적 동일성을 거부함으로써

12) 노상래, 「암흑기 김남천 소설 연구」, 『우리말글』 제37집, 2006.8, 354쪽.

13) 방민호, 「『등불』과 일제 말기의 김남천」, 『일제 말기 한국문학의 담론과 텍스트』, 예음, 2011, 405쪽.

그리고 『식민주의와 비협력의 저항』(역락, 2003)에 『어떤 아침(或る朝)』이 실려 있는 것으로 볼 때, 별도의 설명이 없기는 하지만 이 책의 편역자들(김재용, 김미란, 노혜경) 역시 『어떤 아침(或る朝)』을 ‘비협력’ 혹은 ‘저항’의 측면에서 읽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전자와 같은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만, 형식적 특성에 대한 관심을 작품의 전체 구성에까지 확장하지 못했다는 점과 작품의 정치적 의미를 그것을 둘러싼 동시대 환경 속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했다는 점에서 역시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본 논문은 『어떤 아침(或る朝)』의 언어적 특성보다 서술된 내용 그 자체에 주목하려고 했으며, 작품의 형식적 특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가운데 그 내용을 분석하고 해석하려고 했다. 그리고 작품의 조건일 뿐만 아니라 작품이 개입해 들어간 지점이기도 한 동시대 정치적·이데올로기적 환경 속에서 『어떤 아침(或る朝)』이 갖는 의미를 적극적으로 해명하려고 했다. 이를 위해서 우선 1940년대 초 소설의 형식에 관한 김남천의 이해 방식을 살펴본 뒤, 이를 토대로 『어떤 아침(或る朝)』에 서술된 내용을 분석하고 해석했다. 여기서 김남천의 평론 『두 의사(醫師)의 소설』(『매일신보』, 1942.10.20)은 소설의 형식에 관한 그의 생각을 살펴보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 다음으로는 작품의 분석 결과를 식민지 권력에 의한 조선인 황민화 기획과 관련해서 검토함으로써 그 정치적·이데올로기적 의미까지도 해명했다. 이 작업은 식민지 말기 김남천의 문학 세계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이 시기 조선인 작가의 일본어 소설이 가질 수 있는 의미의 폭을 가늠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

2. 『의사 기온』과 소설의 형식

김남천은 1942년 10월 『매일신보』에 평론 『두 의사(醫師)의 소설』을 발표했다. 1941년 3월 『춘추』에 『소설의 장래와 인간성 문제』를 발표한

지 1년 7개월만의 일이다. 이 평론은 쉐칭가(K.A. Schenzinger)의 『아니 린』과 한스 카로사(Hans Carossa)의 『의사 기온』을 비교해서 분석한 짧은 글이지만, 이 시기 소설의 형식에 관한 김남천의 생각을 잘 보여주고 있어 『어떤 아침(或る朝)』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1930년대 중반 이후 김남천은 평론 활동과 소설 집필을 병행하는 가운데 고발문학론, 관찰문학론, 가족사 연대기 소설론 등 소설의 형식에 관한 여러 성찰들을 토대로 작품을 써왔기 때문에, 『어떤 아침(或る朝)』을 발표할 무렵 그의 소설 논의를 검토하는 것은 이 작품을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하다.

『두 의사(醫師)의 소설』에서 김남천이 반복해서 강조한 것은 “문학의 문제에서는 무엇보다도 형식이 사상을 결정한다는 상식”¹⁴⁾이었다. 여기서 그가 사상에 대한 형식의 결정성을 강조했다라는 사실 그 자체에 주목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김남천은 이전부터 정치 이데올로기에 대한 리얼리즘 방법의 우선(월)성을 강조해왔기 때문에¹⁵⁾, 이 평론에서 사상에 대한 형식의 결정성을 강조하는 게 특별한 의미를 가질 수는 없다. 말 그대로 사상에 대한 형식의 결정성이란 김남천에게는 상식에 불과했다. 오히려 앞의 구절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사상을 결정하는 ‘형식’이 의미하는 바에 관해 묻는 일이다. 이는 ‘형식’이라는 용어 자체가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그가 사상을 결정하는 ‘형식’에 관한 특정한 생각을 토대로 이 시기 소설 작품을 집필했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특히 『어떤 아침(或る朝)』이 『두 의사(醫師)의 소설』 집필 후 약 한 달 반만에 발표된 작품이라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이 평론에 내재하는 소설의 ‘형식’에 관한 생각이 『어떤 아

14) 김남천, 『두 의사(醫師)의 소설』, 정호웅·손정수 편, 『김남천 전집』 I, 박이정, 2000, 725쪽.

15) 줄고, 『1930년대 후반 식민지 조선의 소설 이론』, 소명출판, 2013, 198-199쪽.

침』을 집필하는 데 영향을 미쳤으리라는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¹⁶⁾ 이와 같은 추정과 짐작의 타당성은 이후 『어떤 아침(或る朝)』에 대한 분석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확인될 것이다.

김남천은 『두 의사(醫師)의 소설』에서 『아니린』과 『의사 기온』에 대한 작품 해설과 함께 평가 작업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그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인물의 설정과 배치 문제였다. 즉, 소설가의 인물 설정 및 배치 방법을 중심으로 작품의 형식(구조)을 설명하고 그 성패를 가능했던 것이다. 『두 의사(醫師)의 소설』에서 그는 발자크의 『절대의 탐구』에 비하면 “센칭가의 창조물들은 얼마나 추상적이고 웅졸하고 통속적인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¹⁷⁾고 주장했는데, 『아니린』이 ‘불후의 업적’을 남긴 독일 화학자들을 다루면서 인물들을 ‘지나치게 단순화한 두 개의 타입’으로 설정했다는 게 그 근거였다. 아무리 독일과 영국의 대립을 배경으로 한 작품이라고 하더라도, 영국인을 모두 ‘이윤 추구에만 급급하는 자본가 기업가’로 설정하고 독일인을 모두 ‘인류 구제와 학문의 연구에만 몰두하는 과학자 인도주의자’로 묘사하는 방법은 소설의

16) 김남천은 『두 의사(醫師)의 소설』에서 “애국 사상, 애국심, 애국혼(기타 어떠한 관념이든 간)의 문학적 표현의 성공률은 문학적 형식과 표현 양식의 순수도의 높이에 정비례한다는 초보적인 상식의 상기”를 “하나의 간단한 문학적 결론”으로서 제시했다(앞의 책, 725쪽). ‘국민문학을 강조했던 1940년대 초반 식민지 조선 문단의 상황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문학적 결론은 정치 이데올로기(애국 사상, 애국심, 애국혼)보다 문학적 형식과 표현 양식을 더 강조했다’는 점에서 식민지 권력(의 문학 정책)에 대한 ‘저항’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말하자면, 김남천은 정치 이데올로기와 문학적 성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함으로써 ‘대동아공영권의 세계관의 학습을 국민문학의 조건으로 간주한 국민문학자들에 맞선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본 논문에서는 ‘문학적 형식’에 관한 김남천의 발언에서 정치적 의미보다 문학적 의미에 더 주목하려고 했다. 소설 작품의 저술과 그에 대한 독해가 문제라면, ‘문학적 형식’에 대한 강조가 내포하는 정치적 의미(정치 이데올로기)보다 그가 소설 저술에 토대가 된 ‘문학적 형식’ 이해와 그에 기반한 작품 독해가 더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17) 김남천, 『두 의사(醫師)의 소설』, 앞의 책, 722쪽.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김남천에게 센칭가는 ‘독일 민족의 불멸의 생명력’을 표현하려고 했지만 작품 구성 방법의 문제로 인해 독자들에게 ‘예술적 감흥’을 주지는 못한 작가였다.

그와 달리 김남천은 카로사의 『의사 기온』에 대해서는 매우 호의적인 평가를 내렸다. 이 작품은 아들을 낳기 위해 목숨까지 바치는 시골 농가의 하녀 에메렌츠, 고독하고 가난하지만 순수한 영혼을 소유하고 있는 공원의 소년 토니, 시대의 마신(魔神)과 싸우는 다감(多感)하고 천재적인 소녀 미술가 춘티아, 정신 이상 상태에 빠져 있는 노폐병(老廢兵) 등 패전 후 독일 사회에서 일상적 삶을 살아가는 인물들의 모습을 통해 독일 민족의 ‘의연한 정신’을 적절하게 묘사했다는 것이다.¹⁸⁾ 김남천이 볼 때, 『의사 기온』은 영웅적 인물이나 유형화된 인물들을 설정하는 대신 일상적 삶을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의 관계를 통해 주제를 표현함으로써 『아니린』보다 우수한 작품이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호평에서 그가 미처 언급하지 못한 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인공(의사 기온)을 적극적 행위자가 아니라 일종의 관찰자로 설정함으로써 그와 같은 작품 구성이 가능했다는 사실이다. 이 작품에서 중심 인물인 의사 기온은 사건을 적극적으로 유발하거나 사건에 능동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며, 기껏해야 에메렌츠가 아이 요한나를 낳는 데 도움을 주는 여러 인물들 중 한 명에 불과하다. 카로사는 영웅적 주인공 대신 평범한 인물을 중심 인물로 설정했고, 유형화된 인물들 대신 일상적 삶을 살아가는 다양한 인물들을 그 주변에 배치했던 것이다. 김남천은 이와 같은 작품 구성 방

18) 김남천은 『의사 기온』을 읽은 뒤 느낀 감정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필자는 『의사 기온』을 읽으며 몇 번인가 가슴속에 눈물이 서리는 것을 어찌할 수 없었다. 독일 민족의 전 인원 속에 저 괴테의 고즈넉한 그러나 내부적으로 지극히 의연한 정신이 고루고루 보편화되어 있는 데 깊은 감명과 선망을 느껴 마지않았던 것이다.”(『두 의사(醫師)의 소설』, 앞의 책, 724쪽)

법이야말로 패전 후 독일 사회에서 독일인의 ‘의연한 정신’을 표현하는데 효과적이라고 생각했다.

김남천이 『두 의사(醫師)의 소설』에서 사상에 대한 형식의 결정성을 강조했을 때, 형식의 측면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인물의 설정과 배치 문제였다. 그에 따르면 『아니린』은 영웅적 주인공을 중심으로 유형화된 인물들을 배치한 결과 ‘불멸의 생명력’을 적절하게 표현할 수 없었던 반면, 『의사 기온』은 관찰자를 주인공으로 설정한 뒤 일상적 삶을 살아가는 다양한 인물들을 그 주변에 배치함으로써 ‘의연한 정신’을 감동적으로 표현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인물 중심의 소설 형식 이해는 그의 장편소설 이론에 맞닿아 있는 것이기도 했다. 과거 김남천은 소설 장르 논의에서 임화와 최재서의 ‘적극적(긍정적) 주인공’ 논의를 비판하면서¹⁹⁾ 장편소설이란 ‘전형적 성격들의 풍속도(風俗圖)’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여기서 그의 주장을 뒷받침한 것은 식민지 말기 조선 사회에 적극적(긍정적) 주인공이란 실재하지 않는다는 인식과 조선 사회의 총체적 재현이란 오직 전형적 성격들(‘당해 시대가 대표하는 각 층의 각 계층의 타입’)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는 믿음이었다. 이 시기 식민지 조선인들의 삶에서 긍정적 가치(완미한 인간성, 사회적 이상)를 발견할 수 없다면, 소설가는 적극적(긍정적) 주인공을

19) 다음 인용문에는 임화와 최재서의 ‘주인공’론에 대한 김남천의 비판이 직접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우리는 우리의 사회적 문학적 형편을 돌아보아 과연 신세대의 정신을 체현한 자이거나 또는 신질서를 감당하는 인물을 영웅이나 지도자로서, 아니 하나의 훌륭한 타입으로서 창조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와 같은 처지와 문학적 전통 위에 앉아서 우리는 그러한 타입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일까. 그리고 이것이 불가능할 때엔 문학은 깨끗이 사망 선고를 써야 온당한 것일까. 나는 한 사람의 작가로서 이것을 완강히 거부한다. 나는 그러한 평론가의 무사려(無思慮)한 추상론에는 지지를 표명할 수가 없다.”(『명일에 기대하는 인간 타입』(『조선일보』, 1940.6.11-12), 앞의 책, 613-614쪽)

인위적으로 만들어내서는 안 되며 일상적 삶을 살아가는 다양한 인물들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그럴 때 비록 부정적인 방식 일지라도 긍정적 가치를 드러낼 수 있다는 게 그의 생각이었다.²⁰⁾

카로사가 패전 후 독일 사회에서 일상적 삶을 살아가는 다양한 인물들을 사실적으로 묘사했던 것처럼, 김남천 역시 식민지 사회에서 일상적 삶을 살아가는 다양한 인물들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자 했다. 『어떤 아침(或る朝)』에는 아내의 출산일 아침 ‘나’가 두 아이를 데리고 공원 산책을 다녀와 출근하기까지의 과정이 묘사되어 있는데, 그 대부분은 ‘나’의 과거 회상과 출산일 아침 목격담으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서 ‘나’는 중심적인 인물로 설정되어 있지만, 그 기능은 다른 인물들의 삶을 관찰하는 것으로 제한되어 있다. ‘나’는 아내의 출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도 않으며(아내의 출산일 아침 ‘나’는 집을 나온다), 공원에서 만나는 인물들과 적극적으로 교섭하지도 않는다(‘나는 K씨 일행을 피해 자리를 뜬다). 이 작품에서 ‘나는 S선생(과거 문필가), 두 딸(장녀와 차녀), K씨 일행(사업가), 라디오 체조를 하는 가족, 국민학교 아이들 등 다양한 인물들과 마주치지만 결코 그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려고 하지 않는다. ‘나는 단지 그들의 삶을 관찰하고 그에 대한 간단한 감상을 토로할 뿐이다. 김남천은 중심 인물을 관찰자로 설정한 뒤 그 주변에 서로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인물들을 다양하게 배치해 놓은 것이다. 이 점에서 『어떤 아침(或る朝)』이란 식민지 말기 조선 사회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계층의 조선인들을 묘사해 놓은 작품, 즉 일종의 ‘전형적 성격들의 풍속도’라고 말할 수 있다.

『어떤 아침(或る朝)』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물론 ‘나’의 삶 그 자체가 아니라 ‘나’를 매개로 제시되는 다양한 인물들의 모습이다. 하지만 ‘나’는

20) 줄고, 앞의 책, 216-222쪽 참조.

다른 인물들과의 관계에서 전혀 중심적인 지위를 차지하지 못하는 것과 달리 작품 구성의 측면에서는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나’는 다른 인물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지 않지만, 그들의 삶에 대한 관찰자로서 그들이 작품 속에서 드러나는 방식(모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어떤 아침(或る朝)』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결코 그 자체로서 제시되지 않으며 언제나 ‘나’의 눈을 통해서 매개된 형태로 제시된다. 이는 등장 인물들의 모습에 ‘나’의 흔적이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 따라서 제시된 인물들의 모습을 결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어떤 아침(或る朝)』에 등장하는 식민지 조선인들의 모습은 모두 ‘모방자의 모방자’이자 ‘남존여비론자’라는 ‘나’의 렌즈를 거쳐 제시된 것이므로²¹⁾, 이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나’의 성격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나’의 성격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때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모습은 직접적으로 제시된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날 수 있다. 이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나’에 의해 제시된 인물들의 모습을 그 자체로서 분석하는 일도 필요하지만, 이 분석은 인물들의 모습을 ‘나’의 성격과 관련해서 재해석하는 작업에 의해서 보완되지 않으면 안 된다.

3. 출산(出産)일 아침, 식민지 조선의 풍속도

『어떤 아침(或る朝)』에는 아내의 출산일 아침 ‘나’가 공원 산책을 다

21) 『어떤 아침(或る朝)』에 등장하는 ‘나’의 성격은 ‘4. 불평등의 공동체와 황국신민의 미래’에서 자세하게 분석하고 설명했다.

녀온 뒤 순산을 확인하고는 직장에 출근하는 과정이 기술되어 있다. 이 과정에서 ‘나’는 과거 만났던 사람들을 회상하기도 하고 공원에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을 목격하기도 하며 소풍을 떠나는 국민학교 학생들을 바라보기도 한다. 여기서 ‘나’는 사건에 개입하지도 않고 사건을 유발하지도 않으며, 단지 ‘회상’이나 ‘목격’을 통해서 다른 인물들의 삶을 관찰할 뿐이다. 그로 인해 작품의 내용물은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에 의해 회상되거나 관찰되는 여러 인물들과 관련된 일화들로 채워지게 된다. 말하자면, 이 작품의 내용은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에 의해 관찰되는 식민지 조선인들의 이야기인 것이다. 따라서 『어떤 아침(或る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나’가 아니라 ‘나’의 회상과 목격 행위를 통해 제시되는 식민지 조선인들의 모습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이 작품에서 ‘나’의 과거 회상을 채우고 있는 것은 개벽사(開闢社) S선생 관련 일화, 그리고 두 딸(장녀와 차녀)과 만난 일이다. 우선 S선생과 관련된 일화는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나’가 보통학교 시절 머리를 깎으러 간 이발소에서 잡지 『개벽』을 발견하고는 나중에 커서 문필가가 될 것을 결심한 일, 이후 신문기자로 일할 때 회사 운동회에서 S선생과 만나게 된 일, 그리고 몇 년 전 제약소에 다닐 때 문필을 접고 제약회사 중역으로 일하던 S선생과 마주친 일 등이 그것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나’의 결심도, ‘나’가 S선생과 만나 나눈 대화도, ‘나’와 S선생의 만남으로 인해 발생한 사건도 아니다. 사실 작품 속에서 ‘나’의 결심은 일회적인 일에 그치고, ‘나’와 S선생 사이에서는 의미 있는 대화가 오가지도 않으며, 둘 사이에서 어떤 특별한 사건이 발생하지도 않는다. 그 대신 S선생 관련 일화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그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조선 지식인의 변모다. 과거 『개벽』을 통해서 식민지 조선인의 계몽에 앞장섰던 지식인이 언제부터인가 신문사에 예속된 존재가 되

더니, 급기야는 문필 활동과 무관한 제약 회사 직원이 되고 만 것이다. 그렇다면 S선생의 변모는 무엇보다도 식민지 시기 조선 지식인의 몰락 과정과, 그에 수반하는 계몽 이데올로기(민족주의와 사회주의)의 쇠퇴 과정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할 수 있다.

다음으로 나의 과거 회상을 이루고 있는 것은 죽은 전 처(妻)의 두 딸과 만난 일이다. 오래 전 외가에서 살고 있는 장녀와 만났을 때, '나는 아버지를 타인 대하듯 하는 그녀의 모습에서 한편으로 그녀의 성장을 확인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부녀 간 애정 결핍에 섭섭함을 느낀다. 일 년 반 전 시골 친가에서 차녀와 만났을 때 '내가 느낀 감정도 이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태어난 지 아흐레 째 어머니를 잃고 시골로 옮겨져 자란 차녀를 볼 때면 '나는 한편으로 그녀에 대한 사랑을 느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그녀를 잘 돌보지 못한 데 대한 죄책감을 느끼는 것이다. '나는 두 딸을 만나면서 자신이 아버지임을 자각하게 되고, 부성애에 관해 생각하게 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와 같은 가족 이야기가 S선생 관련 일화 바로 뒤에 배치되어 있다는 점이다. 『어떤 아침(或る朝)』의 이러한 서사 구조, 혹은 장면 배치가 의미하는 바는 분명해 보인다. S선생의 삶을 통해서 식민지 조선 지식인의 몰락과 그 이데올로기의 쇠퇴를 보여주었다면, 두 딸의 삶을 통해서는 그와 같은 몰락과 쇠퇴 이후 가족에 대한 사랑과 책임이 삶의 전면에 등장하게 되었음을 보여준 것이다. 식민지 말기 조선 사회에서 '지식인' 대신 등장한 것은 '아버지'였고, 계몽 이데올로기를 대신한 것은 가족 이데올로기였다.

'나의 회상이 과거 식민지 시기 조선 지식인의 몰락과 그 이데올로기의 쇠퇴 과정을 보여주었다면, 출산일 아침 '나의 목격담은 식민지 말기 조선 사회의 모습을 제시해준다. '나의 회상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20여 년에 이르는 식민지 조선의 과거사였다면, 사업가 K씨의 일행, 라디

오 체조를 하는 가족, 소풍을 떠나는 국민학교 학생들에 대한 ‘나’의 목격담은 그러한 과거사를 포함하고 있는 식민지 말기 조선 사회의 풍속도인 것이다.

아내의 출산일 아침 두 아이를 데리고 산책을 떠난 ‘나’는 공원 휴게소에서 대여섯 명의 K씨 일행을 만난다. 그 곳에서 ‘나’는 재계와 관계의 유명 인사 K씨가 수행원들을 부리는 모습에서 ‘현대의 다이묘(大名)’를 떠올리기도 하고, 그가 한 청년이 길어온 약수를 마시며 즐거워 하는 모습에서 유쾌한 느낌을 받기도 한다. 그리고 K씨 일행이 부르는 일본 군가 ‘우미유까바(海ゆかば)’를 두 아이와 함께 가만히 서서 듣기도 한다. K씨 일행의 행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식민지 권력 관계와 그 이데올로기의 성격이다. K씨와 그 수행원들의 관계가 식민지 통치자와 피통치자들이 군신관계로 조직되어 있음을 암시한다면, 그들이 함께 부르는 군가는 이러한 군신관계가 황국신민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재생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점은 “바다에 가면 물에 잠긴 시체 / 산에 가면 풀에 덮인 시체 / 천황과의 인연이기에 따를 것이다 / 뒤돌아보지 않을 것이다”²²⁾라는 ‘우미유까바(海ゆかば)’의 가사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어떤 아침(或る朝)』에서 K씨 일행의 행동은 식민지 말기 조선 사회가 ‘천황’ 중심의 군신(君臣)관계로 조직되어 있음을, 그리고 그 중심에 황국신민 이데올로기가 자리잡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K씨 일행이 떠나고 난 뒤 ‘나’는 공원에서 내려오던 중 라디오 체조를 하는 가족을 목격한다. 공원에서 마흔 살 가량의 아버지, 육 학년 정도 되는 장남, 사오 학년 정도의 장녀, 너댓 살 정도의 소녀와 또 한 명의 아이 등 연령이 다른 다섯 명의 가족이 구령 소리에 맞춰 체조를 하

22) 정인택, 『뒤돌아보지 않으리(かへりみはせじ)』(『국민문학』 1943.10), 이시다 코조 편, 노상래 옮김, 『신반도문학선집』1, 제이엔씨, 2008, 80쪽에서 인용.

고 있다. 식민지 말기 조선 사회에서 이처럼 다섯 명의 가족이 구령 소리에 맞춰 동일한 동작을 취하는 것은 결코 탈이데올로기적이거나 가치 중립적인 행위가 아니다. 오히려 그 행위에는 일상적 삶의 차원에서 작동하는 식민지 권력의 메커니즘이 강하게 내포되어 있다. 사실상 라디오 체조는 이미 그 기원에서부터 ‘국민의 형성’이라는 목적을 내재하고 있었다. 그 때문에 식민지 시기 조선인들은 라디오를 통해 나오는 구령 소리에 맞춰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장소(상상적인 국토, 혹은 학교 등 실재하는 일정한 공간)에서 똑같은 동작을 함으로써 국민, 나아가 황국 신민으로서의 자신을 상상”할 수 있었다.²³⁾ 체조가 생물학적 신체에 사회적 의미와 가치를 새겨 넣는 기능을 하고 신체를 제도의 관습이 기록되는 장소로 만드는 것이라면, 라디오 체조란 ‘황국신민화의 기제들에 자신의 몸을 맡기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²⁴⁾ 식민지 조선인들이 정신의 수준에서 ‘황국신민’의 정체성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을지 몰라도, 라디오 체조를 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신체는 ‘황국신민’으로 형성(상상)되고 있었다.

라디오 체조 장면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라디오 체조를 통한 신체의 황국신민화가 가족 이데올로기를 수렴함으로써 더욱 강화된다는 사실이다. S선생과 두 딸에 대한 ‘나의 회상’이 식민지 조선 지식인의 몰락 및 계몽 이데올로기의 쇠퇴 이후 가족 이데올로기의 전경화 과정을 보여주었다면, 라디오 체조를 하는 가족의 모습은 식민지 말기 가족 이데올로기가 황국신민 이데올로기로 수렴된 상태를 형상적으로 보여준다. 식민지 조선인의 신체가 라디오 체조를 통해서 황국신민으로 형성

23) 윤대석, 『1940년대 전반기 황국 신민화 운동과 국가의 시간·신체 관리』, 『한국현대문학연구』 제13권, 2003, 82쪽.

24) 위의 글, 84쪽.

(상상)되는 것처럼, 가족 역시 라디오 체조를 통해서 황국의 가족으로 형성(상상)되는 것이다. 사실상 이 시기 황국신민의 형성(상상)이란 팔굉일우(八紘一宇)와 군민일체(君民一體)를 두 축으로 한 황도정신(皇道精神)의 습득과 실행을 의미했는데, 그 중심에는 무엇보다도 가족주의적 상상력이 작동하고 있었다. 간단히 말해서 팔굉일우란 ‘전 세계의 일가주의(一家主義)’로서 국가들 사이의 관계를 가족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로 치환하는 것이었고, 군민일체란 천황과 신민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와 동일시하는 것이었다.²⁵⁾ 그로 인해 조선인 황민화 정책에서 가족주의 이데올로기는 황국신민 이데올로기로 큰 문제 없이 수렴될 수 있었다.²⁶⁾ 과거 『개벽』 시대 식민지 지식인들이 가졌던 계몽 이데올로기가 가족 이데올로기의 부상과 더불어 쇠퇴한 이후 식민지 말기 조선 사회에서 주도적 지위에 오른 것은 가족 이데올로기를 수렴한(내포하는) 황국신민 이데올로기였다.

『어떤 아침(或る朝)』의 마지막 장면은 국민학교 아이들이 이열종대로 소풍을 가는 모습을 통해서 황국신민 이데올로기가 성공적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다시 말해 조선인 황민화 기획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민학교 바로 앞에 당도하자, 이 학년쯤 되었을까, 네다섯 명의 훈도에 인솔

25) 『권두언 연성의 봄』, 『조광』 제9권 3호, 1943.3, 15쪽.

26) 황국신민 이데올로기에서 ‘가족은 국가를 구성하는 기본적 단위이자, 국민적 자질을 훈련하고 함양하기 위한 ‘국민의 제일의적(第一義的) 도장(道場)’으로 간주되었다. “家族의 各員이 家를 爲하여서 滅私하고 職域奉公을 하는 것은 곧 나라를 爲하여서 臣道를 實踐하는 修行인 동시에 그 自體가 臣道 實踐이 되는 것이다. 權威에 對한 尊敬, 秩序의 習慣, 禮法 全體를 爲하여서 自己를 犧牲하는 精神, 全體의 名譽를 尊重하는 精神 등이 다 家의 生活에서 訓練 涵養되는 것이니 그럼으로 家는 곧 國民의 第一義的 道場이다.”(이광수, 『일본문화와 조선-실생활을 중심으로』, 이경훈 편역, 『춘원 이광수 친일문학전집Ⅱ』, 평민사, 1995, 229쪽; 강조는 인용자)

되어 소풍 가는 아이들 행렬이 이열종대로 와글와글 시끄럽게 까불고 떠들면서 교문에서 흘러오는 것과 마주쳤다. 작은 룩색을 등에 메고 두 명씩 손을 끼고 나온다. 그것은 얼마나 명랑하고 원기 있는 행렬인가.

나는 시간이 가는 것도 개의치 않고 먼지를 일으키며 거리 쪽으로 흘러가는 이 꾸불꾸불한 소국민(小國民)의 행렬을 끝까지 지켜보았다. 그리고 문득 내 다섯 아이들도 저 안에 섞여 있는 듯한 착각을 느꼈다. 또는 저 S선생의 막내아들도, K씨의 손자도 저 행렬 속에 있지 않을까, 하고 두서없이 생각하고 있었다.²⁷⁾

위 인용문에서 ‘나는 공원 산책을 마친 뒤 아내의 순산을 확인하고 회사로 출근하던 중 국민학교 아이들의 소풍 장면을 목격한다. 여기서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소국민의 행렬’ 속에 ‘내 다섯 아이들’뿐만 아니라 ‘S선생의 막내아들’과 ‘K씨의 손자’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듯한 생각을 한다는 사실이다. 이는 ‘소국민의 행렬’ 속에서 내 다섯 아이들, S선생의 막내아들, K씨의 손자 등 조선인의 아이들이 모두 ‘고국민(=황국신민)’으로 상상되고, ‘고국민(=황국신민)’인 한에서 아버지의 경력이나 지위와 무관하게 모두 동등한 존재로 인정 받게 됨을 의미한다. 식민지 조선의 아이들은 ‘황국(皇國)’의 구성원이라는 점에서 모두 평등한 존재가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황국(皇國)’이란 구성원들 사이의 평등을 보장해주는 국가, 즉 ‘평등한 국가’로 간주되어야 하는지 모른다.²⁸⁾

라디오 체조가 황국신민 이데올로기를 신체화하는 기능을 했다면, 국민학교 학생들의 소풍 행렬은 그 이데올로기를 신체화하는 데 그치지

27) 김남천, 『或る朝』, 『국민문학』, 1943.1, 162쪽. 번역문은 김남천, 『어떤 아침(或る朝)』, 이경훈 편역, 『한국 근대 일본어 소설선』, 역락, 2007, 254쪽에서 인용했음. 『어떤 아침(或る朝)』의 번역은 모두 이경훈의 것을 따랐기 때문에, 이후 인용 시 원문의 쪽수와 이 번역문의 쪽수를 본문에 병기함.

28) 조선인 황민화 기획에서 최종 목표는 ‘내선 무차별평등’에 도달하는 것이었다. 식민지 권력에게 이 용어는 조선인의 황민화를 촉진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지만, 조선인들에게는 ‘차별로부터의 탈출’을 가능하게 하는 ‘목적’을 의미했다.(宮田節子, 李焚娘 옮김, 『조선민중과 ‘황민화’정책』, 일조각, 1997, 164-166쪽 참조)

않고 정신화하는 데까지 나아간다. 그런데 이와 같은 기능은 사실상 소풍이라는 특정한 사건에만 한정해서 작동하는 것이라기보다 국민학교라는 제도 그 자체를 통해서 이미 작동하고 있는 것이었다. 식민지 조선에서 국민학교는 1941년 3월 ‘국민학교령’에 의해 처음 제도화되었는데, 이를 통해서 조선어 과목이 교과 과정에서 폐지되고 천황제 이데올로기와 국가주의를 중심으로 한 교과 외 활동(조회, 집단체조, 소풍, 수학생활, 운동회 등)이 강화되었다. 이와 관련해서 학교에서는 ‘교육’이라는 용어 대신 ‘연성(鍊成)’이라는 신조어가 급속하게 유포되어 사용되기도 했다. ‘연성’이란 ‘황국의 도에 따라 아동의 내면으로부터 전 능력을 올바른 목표에 집중시켜 국민적 성격을 육성 강화하는’ 것을 의미했는데, 이는 식민지 말기 들어 ‘황국신민으로서의 자질을 연마 육성하는 것이 학교 교육의 목표가 되었음을 보여준다.²⁹⁾ 조선인 학생들로 이루어진 소풍 행렬의 목적 역시 교과 외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을 ‘연성하는 데, 즉 조선 아이들이 조선어를 잊고 ‘황국의 도’를 내면화함으로써 ‘황국신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상하도록 하는 데 있었다.³⁰⁾

『어떤 아침(或る朝)』은 ‘나’의 눈을 매개로 식민지 말기 조선 사회의 풍속도를 보여주고 있다. 식민지 지식인이 몰락하고 계몽 이데올로기가 쇠퇴한 후 가족 이데올로기가 부상하기도 했지만, 식민지 말기 조선 사

29) 오성철, 『조회의 내력』, 윤해동 외 편, 『근대를 다시 읽는다』 1, 역사비평사, 2006, 85-86쪽 · 100-101쪽.

30) 식민지 말기 조선에서 ‘황국신민으로의 연성’은 ‘병사로의 연성’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 사실상 이 시기 국민학교는 교육 내용에서뿐만 아니라 제도에서도 연성소(군사훈련기관)로 간주되었다. 이는 1942년 10월 1일 공포된 ‘조선청년특별연성령’은 국민학교를 군사기관으로 규정한 데서도 잘 드러난다. 그 때문에 17세 이상 21세 미만 조선 청년들은 모두 1년에 600시간씩 특별연성훈련(군사 훈련)을 받아야 했지만, 국민학교 초등과 수료자들은 이 특별연성훈련을 받지 않아도 되었다.(이치석, 『전쟁과 학교』, 삼인, 2005, 96-97쪽)

회의 유지와 재생산에서 주도적 기능을 수행한 것은 가족 이데올로기를 수렴한(내포한) 황국신민 이데올로기였다. K씨 일행과 라디오 체조를 하는 가족, 그리고 소풍을 가는 국민학교 아이들의 모습은 식민지 권력의 조선인 황민화 기획이 일상적 삶의 수준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였다. 카로사가 『의사 기온』에서 다양한 인물들을 통해 독일인의 ‘의연한 정신’이 패전 후 독일 사회에 잠재해 있음을 보여주었다면, 김남천은 『어떤 아침(或る朝)』에서 여러 인물들을 통해 황국신민 이데올로기가 식민지 말기 조선 사회에 만연해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이 시기 조선인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황국신민 이데올로기의 영향력 아래에서 일상적 삶을 살고 있었다.

최재서는 『어떤 아침(或る朝)』에 대해 ‘아기가 태어나던 날 아침 주인공의 큰 기쁨’을 ‘나라의 여명’과 연결한 작품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³¹⁾ 최재서는 ‘아이의 탄생’을 ‘나라의 여명’에 대한 상징으로 해석한 뒤 거기에 ‘주인공의 큰 기쁨’을 덧붙인 것이다. 지금까지의 작품 이해에 따르면 이와 같은 평가가 완전히 잘못되었다고 말하기는 힘들다. 이 작품은 식민지 권력의 조선인 황민화 기획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세계를, 또한 식민지 조선인들이 황국신민 이데올로기 속에서 자신들을 차이(별) 없는 국가(황국)의 ‘고쿠민(=황국신민)’으로서 상상하는 세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재서의 해석은 『어떤 아침(或る朝)』에 그려진 사회의 모습을 단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뿐이었다는 점에서, 즉 이 작품의 형식적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기술된 내용을 이해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나’의 시선을

31) 최재서, 노상래 옮김, 『국민문학의 작가들』, 『전환기의 조선문학』, 영남대학교출판부, 2006, 166-167쪽.

매개로 제시되어 있음을 고려한다면, 그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작품을 이해하는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없다. 다음 장에서는 출산일 아침 조선 사회의 풍속도를 ‘나’의 성격과 관련해서 재해석하려고 했다. 이를 통해서 지금까지의 작품 이해와는 전혀 다른 방식의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4. 불평등의 공동체와 황국신민(皇國臣民)의 미래

『어떤 아침(或る朝)』에서 ‘나’는 사건을 유발하거나 사건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주인공은 아니지만, 여러 인물들의 삶을 관찰하는 ‘눈’으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나’의 성격은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황국신민 이데올로기의 신체적·정신적 수용자들로 묘사하고, 그들이 살아가는 세계 역시 그 이데올로기에 의해 재생산되는 사회로 기술하는 데 결정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는 ‘나’의 시점에서 제시된 『어떤 아침(或る朝)』의 세계상이 ‘나’의 성격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재구성되어야 한다는 것, 그럼으로써 비로소 이 작품이 내포하는 의미도 적절하게 포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선 흥미로운 것은 출산일 아침 공원에서 목격한 인물들의 행동을 모방하(려)는 ‘나’의 모습이다. ‘나’는 공원 휴게소에서 K씨가 한 청년이 길어온 약수를 꿀꺽꿀꺽 마시고 “아아 정말 기분 좋다, 하며 미소 짓는 것”을 “믿음직하고 또 유쾌하게 판단”한다(160/251). 그리고는 샘터에 가서 창이(셋째 딸)가 떠주는 약수를 마시고 난 뒤 “아아 기분 좋다”라고 말하면서 “아까 K씨가 그랬듯이 미소”를 짓는다(160/252). ‘나’는 정계와

관계의 유명인사 K씨의 모습에서 ‘훌륭한 사람에게 흔히 있는, 어딘가 범하기 어려운 위엄’을 발견하고, 그의 행위에 대한 모방을 통해서 ‘훌륭함’과 ‘위엄’을 갖춘 인물이 되고 싶다는 소망을 표현한 것이다. 다음으로 ‘나는 라디오 체조를 하는 가족의 모습을 바라보며 “나도 곧 다섯 아이들의 아버지가 되니, 언젠가 다 모이면 모두 데리고 산에 와서 라디오 체조를 해 보자고 생각”한다(161/252-253). ‘나는 라디오 체조를 하는 가족의 모습을 ‘아주 유쾌하고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정경’으로 받아들이는데, 여기에는 가족과 함께 라디오 체조를 함으로써 ‘유쾌함’과 ‘따뜻함’을 경험하고 싶다는 바람이 드러나 있다. ‘나는 K씨 일행을 모방함으로써 그들과 ‘동일하게’ 훌륭함과 위엄을 갖춘 인물이 되고 싶고, 라디오 체조를 하는 가족을 모방함으로써 그들과 ‘동일하게’ 유쾌함과 따뜻함을 경험하고 싶은 것이다. 여기서 황국신민 이데올로기에 충실한 인물들의 행위를 모방하는 것은 훌륭한 자질을 소유하고 긍정적 감정 상태에 도달하는 데 유력한 방법으로 간주된다.

『어떤 아침(或る朝)』에서 ‘나의 모방 욕망은 조선인 황민화 기획의 내적 논리를 드러내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식민지 권력이 내선일체를 강조하면서 ‘황국신민=고구민’을 전제한 의도는 사실상 조선인의 ‘동화’나 ‘민족말살’을 실현하는 데 있지 않았다. 그것은 오히려 ‘일본인과 비슷하지만 같지는 않은 모방자로서의 조선인’을 형성하는 데 있었다.³²⁾ 다시 말해, 식민지 권력이 조선 사회에서 형성하려고 했던 황국신민은 조선인도 고구민도 아닌 ‘새로운 국민’이었다.³³⁾ 조선인 황민화 기

32) 장용경, 『‘조선인’과 ‘국민’의 간극-전시체제기 내선일체론의 성격과 조선 지식인들의 대응』, 『역사문제연구』 제15호, 2005.12, 289쪽.

33) 박노현은 최재서의 국민문학론을 다루는 과정에서 그와 같은 ‘새로운 국민’을 ‘내선인’으로 명명하기도 했다.

“최재서의 국민문학론은 일본이라는 부정할 수 없는 중심을 인정하면서도 팔괘의 의

획에서 관건은 조선인과 고쿠민 사이의 간극을 유지하면서도 조선인을 ‘별개의 존재’로 인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고³⁴⁾ 그 목적은 ‘동화나 ‘민족말살’이 아니라 ‘모방자로서의 조선인’, 즉 ‘황국신민’³⁵⁾을 형성하는데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모방 메커니즘 안에서 식민지 조선인은 고쿠민과 황국신민의 동일성을 상상하면서 현실화하려고 노력하지만, 이런 노력은 거꾸로 고쿠민과 황국신민의 이질성을 돌이킬 수 없는 사태로 확정하게 된다.³⁶⁾ 고쿠민과 황국신민의 동일성을 현실화하려는 노력은 궁극적으로 두 정체성 사이의 이질성을 ‘언제나 이미 주어진 것’으로 전제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러한 이질성은 ‘모델(고쿠민)’과 ‘모방자(황국신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수평적 이질성이 아닌 수

미 없는 일부, 특색 없는 지방이 아니라 의미 있고 특색 있는 특산품으로서의 조선문화를 부각시켜 국민문학이라는 보다 넓은 품에 안김으로써 ‘내선인’이라는 새로운 국민을 탄생시키기 위한 기획이었던 것이다.”(『內鮮人과 국민문학: 신민족에 의한 신문학 고안의 기획·최재서의 민족문학과 국민문학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어문학연구』 제42집, 2004.2, 266쪽)

34) 장용경, 앞의 글, 286쪽.

35) ‘황국신민’이라는 말은 1930년대 말 학무국장 시오바라 토키자부로(鹽原時三郎)가 만든 신조어다. 그 전에도 이 말은 있었지만, ‘황국신민’이라는 말이 한 시대의 상징어가 되어 사회적으로 맹위를 떨친 것은 식민지 말기 조선에서였다.(宮田節子, 앞의 책, 104쪽)

36) 이와 같은 모방의 메커니즘이 식민지 조선인의 ‘오인(誤認)의 구조’에 의해서 작동하고 있었다는 점도 충분히 지적될 수 있다. ‘국민문학’을 주장했던 식민지 지식인(문학자)의 의식 구조에 관한 다음과 같은 설명에는 이 점이 잘 나타나 있다.

“국민문학은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 지배 욕망과, (조선=일본)이라는 등식의 내면화를 근거로 스스로를 세계사의 보편의 위치에 올려놓으려는 식민지 지식인의 욕망의 공모관계라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물론 이 욕망이 철저한 오인(誤認)의 구조에 의해서 작동했다는 사실 또한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동조동근론의 연장선에서 조선과 일본의 완전한 유기적 일체화를 요구한 내선일체론은 조선과 일본이라는 개별적 실체의 융합이 아니라 일본이라는 국체에의 흡수와 동화를 의미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고봉준, 「전형기 비평의 논리와 국민문학론」, 『한국현대문학연구』 제24집, 2008.4, 262쪽)

직적 이질성, 즉 ‘위계적’ 이질성이기도 했다. 그렇다면 조선인 황민화 기획이란 결국 동질성과 위계적 이질성의 역설적 관계, 즉 평등과 불평등의 역설적 관계를 고착화하려는 시도라고 규정할 수 있다. 그것은 고쿠민과 황국신민의 동일성을 약속함으로써 그 둘의 위계적 이질성을 영속화하고, 두 정체성 사이의 평등을 약속함으로써 불평등을 영속화하려는 시도였다.

K씨 일행이 군가를 부르는 모습, 라디오 체조를 하는 가족의 모습, 이 열종대로 소풍을 가는 국민학교 아이들의 모습 등은 식민지 말기 조선인 황민화 기획의 작동 방식을 잘 보여주는 사례들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기획에 내재하는 모방 메커니즘의 불평등 구조를 예증하는 사례들이기도 하다. 『어떤 아침(或る朝)』에서 식민지 조선인들은 ‘고쿠민=황국신민’의 동일성을 상상하면서 군가를 부르고 체조를 하지만, 실재하는 것은 두 정체성 사이의 위계적이고 이질적인 관계다. K씨 일행과 라디오 체조를 하는 가족은 자신들을 ‘황국신민’으로서 상상하지만, ‘황국신민’을 상상하는 바로 그 행위를 통해서 자신들이 고쿠민(일본인)의 모방자에 불과함을 입증하게 된다. 여기에 제3의 인물, 즉 약수를 마시는 K씨의 모습과 라디오 체조를 하는 가족의 모습을 모방하(려)는 ‘나의 존재가 더해지면 위계적이고 이질적인 관계는 더욱 다층화된다. 이 작품에서 ‘나는 ‘모방자로서의 황국신민’을 모방하는 자(‘모방자의 모방자’)로 등장하며, 그 결과 정체성들의 위계질서에서 앞의 두 정체성보다 아래쪽에 놓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어떤 아침(或る朝)』의 세계상이란 모델로서의 고쿠민, 고쿠민을 모방하는 황국신민, 황국신민의 모방자 등 여러 정체성들의 위계적 구조화가 이루어진 사회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사회에서 인물들은 ‘고쿠민=황국신민(=‘나’)의 동일성 위에서 신체와 정신을 통해 황국신민을 형성(상상)하려고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실질적으

로 이루어지는 것은 정체성들 간 불평등 관계의 영속화일 뿐이다.

모방자의 모방자라는 ‘나’의 성격이 『어떤 아침(或る朝)』의 세계에 내재하는 정체성들 사이의 불평등 관계를 폭로했다면, 남존여비론자라는 성격은 불평등 문제를 전면적으로 주제화하는 가운데 그 세계 자체가 불평등 관계로써 구조화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 작품에서 과거 남녀평등론자였던 ‘나는 아이의 출산을 앞두고 “태어나는 것이 꼭 사내아이였으면 좋겠다”는 간절하고 안타까운 기원”(156/245)을 내비치면서, 남녀평등론 자체를 “나의 젊음이 초래한 청춘의 과오에 지나지 않았던 것”(157/247)은 아닌지 회의하기도 하고 “자신이 남존여비론자가 될 것 같아 어쩔 줄 모르는”(158/247) 모습을 노출하기도 한다. 여기서 직접적으로 기술된 것은 과거 남녀평등론자였던 ‘나’가 현재 남존여비론자가 된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모습이지만, ‘나’의 성격을 실제로 결정하는 것은 이와 같은 걱정에도 불구하고 사내아이를 선호하고 사내아이가 태어나기만을 바라는 모습이다. ‘나는 의식적으로 남존여비론을 주장하지는 않을지라도, “남존여비의 사상이 주위에 미만”(157/246)했다는 변명 아래 남존여비론자로서의 삶을 긍정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³⁷⁾ 이처럼 『어떤 아침(或る朝)』에서 ‘평등/불평등’ 문제는 ‘남녀평등/남존여비’ 문제로 전위되어 현상하며, 그럼으로써 ‘나’에 의해 관찰되는 세계의 특성을 조건짓는 결정적 요인이 된다.

‘나’의 성격과 관련해서 또한 주목해야 할 것은, 남존여비론자라는 성

37) ‘나가 남존여비론자로서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은 다음과 같은 장면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어쨌든 아들만 벌써 넷입니다, 하고 대답하는 사람에게는 하하, 그것 참, 그것 참, 하며 경하의 말을 하는 대신, 아니 자네는 아들이 늦어서, 하고 동정 받거나, 위의 두 아이가 딸이라고 하면—이번에는 반드시 아들일 거요, 하고 위로 받거나 하면, 초조에 가까운 쓸쓸함을 좀처럼 금할 수 없다.”(157/247)

격이 회상 장면 후 출산일 아침 목격담 전에 배치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출산일 아침 여러 인물들의 모습이 불평등의 시점에서 기술될 것이고, 그에 대한 짧은 소감 역시 불평등의 입장에서 제시될 것임을 암시한다. 그 결과 ‘나’가 공원 휴게소에서 만난 K씨의 모습에서 ‘훌륭한 사람에게 흔히 있는, 어딘가 범하기 어려운 위엄’을 발견하게 될 때, K씨와 그 수행원들 사이의 권력 관계는 ‘나’의 시야에서 중심적인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게 된다. 그리고 ‘나’가 라디오 체조를 하는 가족의 모습을 ‘아주 유쾌하고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정경’으로 여길 때도 구령을 붙이는 아버지와 그에 따르는 아이들 사이의 위계 관계는 전혀 고려되지 않으며, 소풍을 가는 국민학교 아이들의 모습을 ‘명랑하고 원기 있는 행렬’로 바라볼 때도 네다섯 명의 훈도와 아이들 사이의 위계 관계는 자연스러운 것으로 제시된다. 불평등은 고쿠민과 황국신민 사이에도, 황국신민을 상상하는 집단의 내부에도, 일상적 삶의 공동체 내부에도 구조화되어 있지만, ‘나’의 불평등한 시선에는 오직 평등의 질서만 현상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불평등한 시선에 ‘평등한 국가로서 현상하는 『어떤 아침(或る朝)』의 세계상이란 사실상 ‘불평등의 공동체’일 수밖에 없다.³⁸⁾ 식민지 말기 조선 사회에서 지배적인 것은 평등의 약속(황국신민 이데올로기)이었고, 실재하는 것은 그에 의해 재생산되는 불평등 상태였다.

『어떤 아침(或る朝)』은 한편으로 식민지 말기 조선인들이 평등의 약

38) 1941년 경무국 보안과장 후루카와 가네히데(吉川兼秀)는 ‘내선일체’를 곧바로 ‘무차별평등’으로 해석하는 조선인들의 사고방식을 비판하기도 했다. 이 시기 식민지 권력이 내세운 내선일체란 ‘황국신민화’, 즉 ‘법률과 제도의 차별’ 위에서 이루어지는 ‘정신과 교육 측면에서 조선인의 일본인화’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 때문에 조선총독부는 일부 조선인들이 요구했던 참정권 부여, 호적법 및 국적법 적용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제도 개선을 통한 불평등 해소에도 소극적인 자세를 취했다. 법제상의 내선일체는 ‘조선인과 일본인이 명백히 구별되는 상황’에서 운영된 것이다.(이승일, 『조선총독부 법제 정책』, 역사비평사, 2008, 307-315쪽)

속을 믿으면서 자신을 황국신민으로 형성해 가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조선인 황민화 기획에 내재하는 모방의 메커니즘으로 인해 평등의 약속이란 결코 현실화될 수 없으며 오직 불평등 상태만 실재할 뿐이라는 사실을 폭로한다. 이는 식민지 권력의 조선인 황민화 기획이란 사실상 불평등 상태를 영속화할 뿐이라는 것, 따라서 자신을 황국신민으로 상상했던 식민지 조선인들 역시 불평등한 존재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식민지 말기 조선인들이 군가를 부르고 라디오 체조를 하면서 황국신민을 상상하는 행위가 보여주는 것은 이와 같은 평등과 불평등의 역설적 혼합이었다. 이 점에서 『어떤 아침(或る朝)』이란 식민지 말기 조선 사회의 재생산 메커니즘(모방의 메커니즘)과 함께, 이 사회에서 형성되는 주체(황국신민)의 역설적 구조를 주제화한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다. S선생, ‘나의 두 딸, K씨 일행, 라디오 체조를 하는 가족, 소풍을 가는 국민학교 아이들 등 식민지 조선인들이 자신들을 황국신민으로서 상상할 때, 말하자면 황국신민 이데올로기를 신체와 정신으로써 수용할 때 형성되는 것은 바로 역설적 주체인 것이다. 식민지 조선의 역설적 주체들은 동일성을 상상함으로써 위계적 이질성을 내면화하는 존재들이었고, 평등을 상상함으로써 불평등을 영속화하는 존재들이었다.

『어떤 아침(或る朝)』이 황국신민의 형성을 주제화한 작품이라면, 아이의 ‘출산’은 황국신민의 형성 자체를 역사화하는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특히 중요하다. 아이의 출산은 전반부에서 ‘나의 공원 산책을 유발한 원인이기도 하고, 중반부에서 남존여비론자라는 ‘나의 성격을 표면화시킨 계기이기도 하며, 후반부에서 ‘나의 회사 출근을 가능하게 한 요인이기도 하다. 아이의 출산은 서사를 전개하고 문제의식을 드러내는 과정에서 일종의 지배적 모티브로 기능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작품에서 아

이의 출산이 갖는 의의는 이와 같은 형식적 기능에 한정되지 않는다. 그것은 더 나아가서 식민지 말기 역설적 주체의 형성 자체에 시간의 차원을 부여하는 기능 역시 수행한다. 물론 『어떤 아침(或る朝)』에서 시간의 차원은 ‘나’의 회상 장면에서도 중요한 계기로서 작용한다. 식민지 조선 지식인의 몰락, 계몽 이데올로기의 쇠퇴, 가족 이데올로기의 발흥 과정 등은 명백히 작품에 시간성을, 즉 ‘과거’의 시간성을 부여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이의 출산은 작품에 ‘미래’의 시간성을 부가해준다는 점에서 회상의 시간성과 질적으로 구별된다. ‘나’의 회상이 식민지 말기 조선 사회의 전사(前史)를 서술함으로써 이 사회에 역사적 정당성을 부여한다면, 아이의 출산은 이 사회의 ‘이후’를 사유하게 함으로써 이 사회의 역사적 정당성을 의문스럽게 만든다. 과거의 시간이 그 결정성으로 인해 현재의 시간에 안정성을 부여하는 것과 달리, 미래의 시간은 그 미결정성으로 인해 현재의 시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이다.

아이의 미래는 예상될 수는 있지만 결코 결정될 수는 없다. 식민지 시기 태어난 아이가 황국신민으로 형성되리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지만, 미래라는 시간의 속성상 황국신민으로의 형성이 ‘언제나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아침(或る朝)』의 마지막 장면은 바로 이 문제를 잘 포착하고 있다. 여기서 ‘나’는 소풍을 가는 국민학교 아이들의 모습을 ‘꾸불꾸불한 소국민의 행렬’로 규정한 뒤, “문득 내 다섯 아이들도 저 안에 섞여 있는 듯한 착각을 느꼈다”면서 “저 S선생의 막내아들도, K씨의 손자도 저 행렬 속에 있지 않을까, 하고 두서없이 생각하고 있었다”(162/254)고 기술한다. 이 시기 조선에서 태어난 아이가 국민학생이 되고 ‘소국민의 행렬’ 속에서 황국신민으로 성장하는 것은 매우 현실성 있는 예상임에도 불구하고, 이 장면에서는 그 예상이 ‘착각’이나 ‘두서없는 생각’ 정도로 치부된다. 이는 아이의 미래를 ‘언제나 이

미’ 결정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하려는 데 대한 명백한 ‘머뭇거림’의 태도이자, 더 나아가서는 아이의 미래를 미결정성 속에서 사유하려는 태도다. 그리고 아이의 미래를 이처럼 미결정성 속에서 제시함으로써, 아이의 형성을 조건짓는 사회의 재생산 시스템에 그 역사적 정당성과 안정성에 관한 물음을 던지려는 태도다.

『어떤 아침(或る朝)』에 제시된 세계는 결코 구조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완결된 사회, 즉 황국신민 이데올로기에 의해 안정적으로 재생산되는 사회가 아니다. 그 세계는 오히려 평등과 불평등의 역설적 혼합에 의해 규정되는 사회이자 양립할 수 없는 시간의 두 갈래 흐름이 이접(離接)해 있는 사회다. 이 사회에서 아이의 출산은 황국신민의 필연적 재생산을 예상하게 하지만, 이런 예상을 ‘착각’이나 ‘두서없는 생각’으로 격하함으로써 ‘다른’ 주체의 형성 가능성 역시 상상하게 한다. 아이의 출산은 식민지 말기 조선 사회의 역설적 상태(평등과 불평등의 역설적 혼합)를 일종의 필연성 속에서 예상하게 하면서도, 그 역설적 상태를 미결정성 속에서 해체할 가능성 역시 상상하게 하는 것이다. 이 경우 평등과 불평등의 역설적 혼합 상태를 해체하는 작업은 이후 평등의 현실화로 귀결될 수도 있지만 불평등의 영속화로 전개될 수도 있다. 말하자면, 역설적 상태의 해체는 단지 미결정성이라는 미래의 시간성만을 재확인하는 데서 그쳐버릴 수도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해체 작업은 식민지 말기 조선 사회에 내재하는 ‘여러 가능성들’을 열어 놓음으로써 적어도 ‘최악의 필연성’만은 피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³⁹⁾ 『어떤 아

39) 자크 데리다는 『마르크스의 유령들』에서 “시간이 이음매에서 어긋나 있다(The time is out of joint)”는 문장에 관해 다룬다. 여기서 그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현재’ 속에 이루어지지 않은 채 있는 ‘다양한 잠재성들’, 즉 역사의 필연성(반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들이었다.

“이음매가 어긋나(out of joint) 있음은, 그것이 현존하는 존재든 현재 시간이든 간에,

침(或る朝)』은 이 시기 조선 사회의 역설적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나 그것을 대신할 만한 비전을 제시해주지는 않지만⁴⁰⁾, 그에 대한 사유를 촉발함으로써 그와는 다른 사회의 존재 가능성에 관해 상상할 수 있게 해준다.

5. 문학의 내잠적(內潛的) 경향

1940년대 전반 김남천은 인물들의 설정과 배치를 중심으로 소설의 형식을 이해했다. 『두 의사의 소설』에는 이와 같은 형식 이해가 잘 나타나 있다. 이 글에서 그는 적극적(긍정적) 주인공을 설정하고 그 주위에 유형화된 인물들을 배치하는 것보다, 일상적 삶을 살아가는 다양한 인물들(전형적 성격)을 설정하고 배치하는 것이 작품의 주제를 드러내는 데 더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이와 같은 생각은 『어떤 아침(或る朝)』의 인물 설정 및 배치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이 작품에서 중심 인물인 ‘나는 사건을 유발하거나 사건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며, 일상적 삶을 살아가는 다양한 인물들의 모습을 관찰하고 전달할 뿐이다. ‘나는 관찰자로 설정되어 있고, 식민지 말기 조선 사회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사람들이 ‘나’를 매개로 배치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물 설정 및 배

피해를 끼치고 고통을 줄 수 있으며, 분명히 악의 가능성 자체를 이룬다. 하지만 이러한 가능성의 개방 없이는, 아마도 선과 악을 넘어서, 최악의 필연성만이 남게 될 것이다. 이러한 필연성은 (심지어) 숙명도 아닐 것이다.”(진태원 옮김, 『마르크스의 유행들』, 이제이북스, 2007, 73쪽)

40) 여기에는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바람직한 사회’나 ‘완미한 인간’을 긍정적 방식으로 묘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그러한 긍정적 가치들이란 오로지 일상적 삶을 살아가는 인물들의 모습을 통해서 부정적인 방식으로만 포착될 수 있다는 그의 신념이 내포되어 있다.(줄고, 앞의 책, 204-206쪽)

치를 통해서 『어떤 아침(或る朝)』은 식민지 지식인의 몰락과 계몽 이데올로기의 쇠퇴 이후 가족 이데올로기가 발흥하고 결국에는 황국신민 이데올로기가 지배력을 행사하게 되기까지 조선 사회의 변화 과정뿐만 아니라, 식민지 말기 조선인 황민화 기획이 조선인들의 일상적 삶에서 작동하는 방식들(군가 부르기, 라디오 체조, 국민학교 제도)까지도 보여줄 수 있었다.

『어떤 아침(或る朝)』에 대한 이해에서 ‘나’의 성격, 즉 ‘모방자의 모방자’이자 ‘남존여비론자’라는 성격은 매우 중요하다. 우선 모방자로서의 모방자라는 성격은 조선인 황민화 기획의 내적 논리(모방 메커니즘)를 드러내며, 이를 통해 식민지 조선인들이 동일성(고쿠민=황국신민)과 위계적 이질성(모델로서의 고쿠민≠모방자로서의 황국신민)의 역설적 혼합 상태에 있음을 폭로한다. 다음으로 남존여비론자라는 성격은 불평등 문제를 직접적으로 주제화하는 가운데, 식민지 말기 조선 사회란 평등의 약속 속에서 불평등 관계를 재생산하는 사회임을 보여준다. 이처럼 『어떤 아침(或る朝)』은 식민지 말기 조선인들이 동일성을 상상함으로써 오히려 위계적 이질성을 영속화하는 역설적 주체됨을 보여주는 한편, 이 시기 사회 역시 평등의 약속 속에서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역설적 상태에 있음을 폭로한다. 그런데 이 작품은 아이의 출산이라는 모티브를 통해서 사회의 역설적 상태를 역사화하는 데까지 나아간다. 아이의 미래가 문제로 제기되는 순간, 미래라는 시간의 속성(미결정성)으로 인해 조선 사회는 그러한 역설적 상태를 반복할 필연성과 더불어 역설적 상태를 해체할 가능성 역시 내포한 것으로 드러나게 된다.

안함광은 1943년 2월 『국민문학』에 『조선 문학의 특질과 방향에 대해(朝鮮文學の特質と方向について)』라는 평론을 발표했다. 여기서 그는 조선 문학에서 ‘사소설의 범람’이 사라진 것을 커다란 수확으로 평가하

는 한편, ‘국민의식의 양양에 기여하는 대신 ‘지적이고 차가운 반성’만을 추구하는 문학의 ‘내잠적(內潛的) 경향’을 문제로 지적했다. ‘내잠적 경향’이란 ‘시대적 감격이 귀중한 신념이나 행동으로 전화되는 것을 방해하는 지적인 반성’으로서 ‘문학적 귀족 취미의 온상’이므로, ‘국민문학은 ‘국민의 공유물’이 되고자 한다면 그러한 ‘문학적 귀족 취미’를 양기해야 한다는 것이다.⁴¹⁾ 이 글에서 안함광이 1943년 1월 발표된 김남천의 『어떤 아침(或る朝)』을 염두에 두고 있었는지는 불분명하다. 그러나 이 작품이 ‘국민의식의 양양에 기여하기보다 식민지 말기 조선인들의 삶에 대한 ‘지적이고 차가운 반성’을 시도한 것만은 분명하며, 이 점에서 『어떤 아침(或る朝)』은 안함광이 언급한 문학의 ‘내잠적(內潛的) 경향’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다.

문학의 ‘내잠적(內潛的) 경향’이 ‘국민’의 입장 대신 ‘문학적 귀족’의 입장에 섬으로써 가능한 것이라면, 『어떤 아침(或る朝)』은 ‘국민’의 형성 대신 그에 대한 ‘지적이고 차가운 반성’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문학적 귀족’의 입장에서 서 있는 셈이다. 이러한 ‘문학적 귀족’의 입장은 결코 식민지 권력에 대한 협력으로 규정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식민지 권력에 대한 저항을 의미한다고 말하기도 힘들다. 김남천은 이 작품에서 식민지 권력 그 자체보다 그것이 조선인들의 삶에서 작동하는 방식을 다루고 있으며, 그런 한에서 그 권력에 대한 협력을 시도하지도 않지만 그에 대한 저항을 시도하지도 않는다. 게다가 그는 식민지 사회와 황국신민의 역설적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혹은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사회와 주체의 비전을 제시해주지도 않는다. 『어떤 아침(或る朝)』은 결코 황국신민 ‘이후’에 관해 언급하지 않으며, 단지 식민지 말기 조선인

41) 안함광, 『조선 문학의 특질과 방향에 대해(朝鮮文學の特質と方向について)』, 이경훈 편역, 『한국 근대 일본어 평론·좌담회 선집(1939~1944)』, 역락, 2009, 223쪽.

들의 삶을 주제화하는 가운데 그 ‘이후’에 관한 사유의 필요성을 제기할 뿐이다. 이는 협력과 저항에 관한 문제라기보다 그 이전의 문제, 즉 협력과 저항을 조건짓는 식민지 말기 조선 사회와 그 역설적 구조에 관한 문제다. 그러므로 『어떤 아침(或る朝)』이란 문학의 정치성(협력/저항)이 강하게 요구되는 상황에서 그 상황 자체를 문제시한 작품, 그럼으로써 협력이나 저항 너머 문학의 존재 가능성을 입증한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 『조광』 제9권 3호, 1943.3.
김남천, 『或る朝』, 『국민문학』, 1943.1.
이경훈 편역, 『한국 근대 일본어 소설선』, 역락, 2007.
정호웅·손정수 편, 『김남천 전집』 I, 박이정, 2000.

2. 논문과 단행본

- 고봉준, 『전형기 비평의 논리와 국민문학론』, 『한국현대문학연구』 제24집, 2008.4.
김윤식, 『일제 말기 한국 작가의 일본어 글쓰기론』, 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김인수, 『총력전기 일본어 글쓰기의 사상공간과 언어검열』, 공제욱·정근식 편, 『식민지의 일상, 지배와 균열』, 문화과학사, 2006.
김재용 외 편, 『식민주의와 비협력의 저항』, 역락, 2003.
김화선, 『일제 말 전시기의 아동문학 및 아동담론 연구』, 김재용 외, 『친일문학의 내적 논리』, 역락, 2003.
노상래, 『암흑기 김남천 소설 연구』, 『우리말글』 제37집, 2006.8.
문경연 외 옮김, 『좌담회로 읽는 『국민문학』』, 소명출판, 2010.
박노현, 『內鮮人과 국민문학: 신민족에 의한 신문학 고안의 기획·최재서의 민족문화와 국민문학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어문학연구』 제42집, 2004.2.
방민호, 『『등불』과 일제 말기의 김남천』, 『일제 말기 한국문학의 담론과 텍스트』, 예옥, 2011.
오성철, 『조희의 내력』, 윤해동 외 편, 『근대를 다시 읽는다』 1, 역사비평사, 2006.
윤대석, 『1940년대 전반기 황국 신민화 운동과 국가의 시간·신체 관리』, 『한국현대문학연구』 제13권, 2003.
_____, 『언어와 식민지-1940년을 전후한 언어상황과 한국 문학자』, 『식민지 국민문학론』, 역락, 2006.
이경훈 편역, 『한국 근대 일본어 평론·좌담회 선집(1939~1944)』, 역락, 2009.
이광수, 『일본문화와 조선-실생활을 중심으로』, 이경훈 편역, 『춘원 이광수 친일문학전집Ⅱ』, 평민사, 1995.
이시다 코조 편, 노상래 옮김, 『신반도문학선집』1, 제이엔씨, 2008.
이승일, 『조선총독부 법제 정책』, 역사비평사, 2008.
이진형, 『1930년대 후반 식민지 조선의 소설 이론』, 소명출판, 2013.

- 이치석, 『전쟁과 학교』, 삼인, 2005.
- 장용경, 『‘조선인’과 ‘국민’의 간극-전시체제기 내선일체론의 성격과 조선 지식인들의 대응』, 『역사문제연구』 제15호, 2005.12.
- 최유리, 『일제 말기 식민지 지배정책연구』, 국학자료원, 1997.
- 최재서, 노상래 옮김, 『전환기의 조선 문학』, 영남대학교 출판부, 2006.
- 자크 데리다, 진태원 옮김, 『마르크스의 유령들』, 이제이북스, 2007.
- 카뮷사, 강두식 옮김, 『醫師 기온』, 『말테의 手記 외』, 정음사, 1980.
- 宮田節子, 李熒娘 옮김, 『조선민중과 ‘황민화’정책』, 일조각, 1997.

Abstract

“The birth of a baby” and the future of “Imperial subjects”
- On Kim Nam-cheon's “A Certain Morning”

Lee, Jin-Hyoung (Yonsei University)

In this paper, I tried to analyze the contents of the writing “A certain morning” focusing on its writing style and also interpret what it tries to say considering the political and ideological environment surrounding the period of the work.

Kim Nam-cheon in 1940s understood the novels focusing on the setting and disposition of characters. In the essay “Novels of tow doctors”, he thought that rather than setting the main character having positive (active) personality for the work, it would be better to set the various characters (the type) living in ordinary life to show his theme in the book. His thought like this was realized in the book “A Certain Morning”.

In this work, a central character “I” is set as an observer. There are also a lot of various kinds of characters surrounding “me” in Late Colonial Era. With this kind of setting, he could show the fall of intellectuals in the period of colonialism, fall of enlightenment idea, appearance of family ideology and loyal man ideology as well as the lifestyle of Korean under the project of Japanese imperial subjectivation (including singing the Japanese military songs, physical exercises and elementary school system).

In the understanding of “A Certain Morning”, the personality of “I” is critical as it has the idea of “Imitator of imitator” and “person who respects men but looks down upon women”. First as the personality of imitator of imitator, he showed the internal logic of the project of Japanese imperial subjectivation (imitation mechanism), and exposed the paradoxical mixture of identity (kokumin = loyal man to Japan) and hierarchical heterogeneity (kokumin as a model ≠ loyal man to Japan as imitator). Next, the personality of person who respects men but looks down upon women showed the inequality of society. It showed that the society in Late Colonial Era was where the unequal relation was kept to continue while the promise of equality was

told.

In this work, the motive of “the birth of a baby” went forward to historize the paradoxical status of society. As the future of the baby was raise as a question, the sociey in Late Colonial Era was related to the necessity of repetition of the paradoxical status and the possibility of deconstruction of the paradoxical status.

“A Certain Moring” is hard to define as work for either the cooperation with the imperial power or the resistance to it. It is because in this work, there is no way to get out of the paradoxical status of colonial society and Imperial subjects or any visions alternative to this status. Instead, this work has thematized the project of Japanese imperial subjectivation itself that conditioned the cooperation with and resistance to the colonialism, so showed another possibilities in the literary works of Korean's in Late Colonial Era.

(Key words: Imperial subject, equality, inequality, identity, hierarchical heterogeneity, paradoxical subject)

투고일 : 2013년 10월 29일 투고

심사일 : 2013년 11월 5~23일 심사

수정보완일 : 2013년 12월 3일 수정제출

게재확정일 : 2013년 12월 10일 게재확정